

始

	훈독	음독
시작하다, 시	はじ(まる) はじ(める)	し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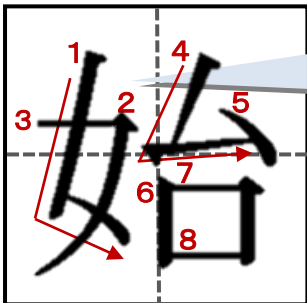


부수 女 총획 8 획

임신한 여자(女)와 농기구를 올려둔 받침대(台) 모양을 따서 만들어졌어요. 옛날엔 농사를 시작할 때 받침대 위에 농기구를 올려두고 풍작을 빌었대요. 여자가 출산을 하는 것도 「시작하다」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죠.



획순에 맞게 예쁘게 써 봅시다



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획은 「く・ノ・一」의 순서로 써 주세요.

始	始			
---	---	--	--	--



단어를 따라 쓰면서 외워봅시다

はじ 始まる 시작되다

はじ 始める 시작하다

しはつ 始発 첫 차

かいし 開始 개시

※ 한자 위의 후리가나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보세요.

はじ			
始まる			
はじ			
始める			

しはつ			
始発			
かいし			
開始			



	훈독	음독
마치다, 종	お(わる)	しゅう

부수

糸

총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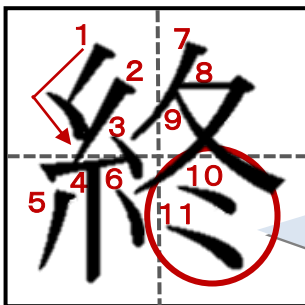
11 획



실(糸) 그리고 매듭지어진 실, 얼음(冬) 모양을 따서 원래는 겨울이 끝난다는 의미였어요. 하지만 점차 의미가 넓어져서 그냥 「끝나다」 라는 뜻이 됐죠.



획순에 맞게 예쁘게 써 봅시다



열 번째, 열한 번째 획은 오른쪽 아래로 끊어 써 주세요.

終	終			
---	---	--	--	--



단어를 따라 쓰면서 외워봅시다

お 終わる 끝나다

お 終わり 끝

しゅうでん 終電 막차

さいしゅうかい 最終回 마지막 회

※ 한자 위의 후리가나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보세요.

お			
終わる			
お			
終わり			
しゅうでん			
終電			
さいしゅうかい			
最終回			



만화 속 문장을 따라 쓰면서 회화 표현도 함께 익혀봅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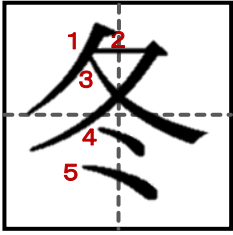
- ・ あっ、<sup>しゅうでん</sup>終電だったのに…。 どうしよう。      아, 막차였는데... 어찌지.
- ・ タクシーは<sup>たか</sup>高いし…。      택시는 비싸고...
- ・ 5時の<sup>じ</sup>始<sup>し</sup>発<sup>はつ</sup>までカフェで待<sup>ま</sup>つしかないか。  
5시 첫 차 시간까지 카페에서 기다릴 수 밖에 없나.

あっ、<sup>しゅうでん</sup>終電だったのに…。 どうしよう。

タクシーは<sup>たか</sup>高いし…。

5時の<sup>じ</sup>始<sup>し</sup>発<sup>はつ</sup>までカフェで待<sup>ま</sup>つしかないか。

관련 한자 ①



	훈독	음독
겨울, 동	ふゆ	とう

부수 二 총획 5 획



목도리와 얼음 모양을  
떠올려 주세요.



단어를 따라 쓰면서 외워봅시다

ふゆ  
冬 겨울

しゅん か しゅうとう  
春夏秋冬 춘하추동

※ 한자 위의 후리가나도 소리 내어 읽으며 써 보세요.

ふゆ			
冬			
しゅん か しゅうとう			
春夏秋冬			